

2023년 3월 15일

## “HSBC, “한국 수출 조만간 안정화 전망”

HSBC 전문가들은 2023 글로벌 경제 • 외환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매년 기업 • 기관 고객들을 위해 개최되는 HSBC 연례 세미나는 3월 14일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시아 총괄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는 뛰어난 회복력을 보였다. 반도체 수요가 줄긴 했으나 중국 본토의 수요 증가 덕분에 조만간 한국 수출 증가세가 안정화 될 조짐이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 성장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뉴먼 총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통화정책 완화로 선회하여, 국내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 봤다. 뉴먼 총괄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긴축정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타국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도 조만간 중립 기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뉴먼 총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이 추 HSBC 아태지역 아시아 통화 리서치 총괄은 2022년에 원화가 거의 줄곧 약세를 보였으나 바닥은 지나간 것으로 분석했다. HSBC 외환 리서치는 최근 미 달러 강세를 야기한 몇가지 주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원화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보였던 회복세를 다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원화 움직임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총괄은 “원화가 미 달러보다 금리가 낮고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원화가 경기 순응적 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총괄은 올해 말 원 달러 환율이 연초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이제 코로나 위기는 지나갔으나,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세계정부채권인덱스(WGBI) 편입 가능성과 같은

기회도 생기고 있다. HSBC는 고객 여러분이 적시에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본부장** 02-2004-0882 [chaewon.suh@kr.hsbc.com](mailto:chaewon.suh@kr.hsbc.com)

##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2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자산은 2조 9천 6백 7십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